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조중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44 호 [루제 제 25287 호] 주제 105 (2016)년 5월 23일 (월요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

사설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진로를 밝혀준 강령적문헌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당중앙이 제시한 위대한 강령을 높이 받들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흥진군포성을 훤히게 울려가고 있다. 백두의 천출위인의 당대회 보고를 자자구구 길이 연구세도록는 전당적, 전사회적,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어나는 속에 온 나라가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불도가니로 끓어번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하신 탕중앙위원회 사업총보고는 우리 당의 강화발전과 사회주의 강국건설을 위한 전략적선과 투쟁방법, 우리 혁명의 전진방향을 세시한 불멸의 대강이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거치높이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즐기자고 펼친지니라며 나갈수 있는 배송의 진로를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당의 사상과 선로은 우리 천만군민의 투쟁의 표적이며 빛나는 실천이다. 영광의 당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사적인 보고를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로 끌어쉬고 보고에서 제시한 전략적선과 투쟁방법을 위한 전략적선과 투쟁방법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천철히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리는 충성심과 혁명적열정은 천번비로 높아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당 제 7 차대회에서 제시한 강령적작업들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당사회주의강국건설을 훤히게 다그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혁명하는 당에 있어서 정확한 투정로선과 강령을 제시하는 것은 사회주의위업을 충실히 이끌어나가는데서 판관적문제로 나선다.

주체혁명위업의 도약기에 들어선 중대한 시기에 전형된 조선로동당 제 7 차대회에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고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명도를 우리 당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와 귀중한 경험이 힘대성되었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끌어쉬고 사회주의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자주적통일, 세계자주화를 위한 투쟁에서의 위대한 승리의 길을 밝쳐준 여기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령적문헌이 가지는 거대한 의미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파학선과 진리선, 시대선포과 보편성, 그 승리의 질연성을 밝히면서 그 가치밀에 전제하는 우리 혁명의 힘찬 전군에 세운 힘을 부여주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힘으로 푸르게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 7 차대회에서 하신 혁사적인 보고는 사회주의강국건설의 가장 정확하고 빠른 지름길을 뚜렷이 명시한 강령적지침이다.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는 것은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실현하는데서 오늘 우리 앞에 나서는 기본투쟁파업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이번 보고에서 사회주의강국의 지위를 물려고 하며 혁명의 힘으로 푸르게 당과 혁명의 힘찬 전군에 세운 힘을 부여주신것은 우리 당과 혁명의 힘으로 푸르게 있다.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고 주체혁명의 배반대계의 진로를 열어놓은 위대한 강령을 받아안은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더없는 영광이고 긍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보고는 지금 내외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며 우리 천만군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풍물격전전에 힘있게 고무주동하고 단체자주화를 위하여 전개하는 세계혁명적인 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당 제 7 차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보고를 더 높이 풍부하고 그 민족사적, 세계시대적승리를 뚜렷이 청명한 사상리론체계로 보이게 되었다.

주체의 사상, 비론, 발언이 철대성피어였던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우리 당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며 현시대와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화하는 여기에 사회주의위업을 완성하고 인민의 자주적 요구와 비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가 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를 환영하는 의식 진행

【답보】 5월 21일 본사특파원발 조선중앙통신】 조선인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의 청도기념공화국 공식 방문을 환영하는 의식이 21일 대통령궁전에서 진행되었다.

대통령궁전 국기계양대들은 우리 나라와 청도기념기념관이 나누기고 있었다.

승리자의 기개드높이 보다 큰 승리의 봉우리를 향하여 총예전하고 있는 뜻깊은 5월, 우리는 혁사적인 무산지구전투승리 77돐을 맞으며 대홍단혁명전적지에 대한 취재길에 올랐다.

대홍단, 그 이름만 들어도 유정히 안겨드는 혁사의 고장이다. 그래서인지 빠르게 찾아온 고장지대 불날의 폐청한 날씨에서 위세길을 달리는 우리를 반겨주는 것 같았다.

아담하게도 특색있게 꾸려진 대홍단읍을 빛어나자마자 이 고장특유의 정취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파이란 새싹들이 푸른 주란을 펼친 깊은 넓은 땅, 그 땅의 풍요한 가을을 지켜 풍대를 비껴들고 서있는 명사마냥 무성한 숲을 이룬 이같은 나무들, 대고연한 수림 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진달래…

그 모든 풍경이 정답게 느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혁사적인 조국인 군의 성을 훌륭히 드러내는 대홍단의 풍물이었다.

경에 하는 길 짚은 동지께 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김정은동지는 대대로 우리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에 이끌어 오신 빅토리의 영광입니다.』

대홍단혁명전적지답사로 표정을 따라가는 우리의 눈앞에 무산지구전투승리의 흔적들이 한눈에 보였다.

번발지에서도 울음창창한 밀음을

때경으로 용강하게 전립되어 있는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탑이 한눈에

항일전구여 전하라,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무 산 지 구 전 투 승 리 7 7 둑 을 맞 으 며

안겼다. 북단치는 승현한 감정은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기념탑의 정면 풍선에는 일행천리 전술로 조국땅 무산지구에 진출하시며 대홍단전투를 치취하시는 위대한 혁명님의 동상이 정중히 모셔져 있었다.

항일의 전설적영웅 김일성장군!

우리가 푸른 한없는 적성의 파도가

찾아왔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그 이의 근엄하신 모습에는

백두산 위인들의 청년장군의

기개와 열정이 달렸다.

포액에 웃자락을 날리시며 한손에

쌍인경을 드시고 전투장이 활동에 바

라보이는 대홍단별의 풍물전 못에

거칠히 시시여 풀소 전투를 지원

하시는 20대의 백비산청년장군,

부강번영할 조국의 래일을 위해 오늘의 순간순간을 값있게 살자

충정의 마지막 울려가는 우리의 손에 더 좋은 래일이 있다

평천정화장관리소개건공사에 참가한 설비조립련합기업소 기능공집단의 투쟁에서

역사적인 당 제7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빛내인 자랑과 긍지로 암고 청조와 혁신의 미치소리 더욱 우렁차게 울려가는 우리의 영웅적 일 김일성·김정일로 일컬어졌다.

그 미마운 전진대 오속에는 청

천정화장관리소개건공사에 참가하여 막은 대상공사를 기한전에 훌륭히 달성거 수행한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18명 기능공 집단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영동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체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는 말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업무를 맨 앞에서 서 밤낮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화를 추구하고나가야 합니다.』

얼마전 청천정화장관리소구 내의 자그마한 단층건물창가에서는 경작에 넓은 목소리를 들을려고 있었다.

『승인동주, 정말 수고했소. 장

하오! 장에!』

집단의 속속에서 물린 사람도 그를 끌어당겨 누구나의 구

리 및 얼굴마다에도 이를 데 없는 기쁨이 한껏 실려 있었다.

이들이 바로 정든 칠판 부모처자 가 있는 활동을 떨리며 떠나면서 청천정화장관리소개건

공사에 활기하고 있는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18명 전투원들이었다.

그들에게 기쁨을 준것은 실제

원수님동주가 착향한 환장의 설계도면이었다.

시간을 앞당기는 사람들

당 제7차대회업무에 떨쳐나온 사람이라면 누구라 없이 시간의 귀중함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더우기 자기앞에 죄에진 로동시간 아니면 투입시간은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진단찰에 지닌 임무와 책임으로 더없이 깊은 신정하고 땀 흘리고 있는 마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헌신하는 시간을 두루 안락까워하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의 만리마시대 주인공들인 것이다.

그러나 2~4시간으로 규정된 하루에 시간의 에비는 얼마나 깊다는 것을 우리는 온파광산기술자, 로동체급의 투쟁에서 알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에 국주의 마음속에 소중한 간직하고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투쟁에 뛰쳐나서도록 하여야 합니다.』

벌써 이를테이다.

이를테이는 날자로가 아니라 4~8시간이라는 시간으로 계산하며 막장에서 긴장하게 일하고 있는 분위기 실장 송수일동부의 눈길은 손목시계에 가렸다.

그는 금방 청천한 발파가 성공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의심치 않았다. 민동기에게 편리하고 쓰기

종전의 조립설계를 현실적 조건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하여 수임과 물류가 없이도 설비조립공사를 내밀수 있게 하는 기밀한 학상에 모두가 감탄해 마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편했다.

그들의 일에는 수정된 부분 설계에 따르는 6대의 주축기공과 함께 물류가 늘어 있었고 그에 뒤이어 설비조립에 필요한 수임과 설비조립기의 18명 기능공 집단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영동적인 김일성·김정일로동체급은 주체혁명의 핵심부대, 나라는 말아들답게 당의 사상과 업무를 맨 앞에서 서 밤낮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화를 추구하고나가야 합니다.』

얼마전 청천정화장관리소구

내의 자그마한 단층건물창가에서는

경작에 넓은 목소리를 들을려고 있었다.

『승인동주, 정말 수고했소. 장

하오! 장에!』

집단의 속속에서 물린 사람도 그를 끌어당겨 누구나의 구

리 및 얼굴마다에도 이를 데 없는 기쁨이 한껏 실려 있었다.

이들이 바로 정든 칠판 부모처자 가 있는 활동을 떨리며 떠나면서 청천정화장관리소개건

공사에 활기하고 있는 설비조립련합기업소의 18명 전투원들이었다.

그들에게 기쁨을 준것은 실제

원수님동주가 착향한 환장의 설계도면이었다.

그들이 그를 자기들에게 팔아갈리는 당시 않은 세기를 해았던 것

이다. 그 말을 전해들었을 때 조립

공의 가슴속에서는 혐오감이 치솟아올랐다.

조수마냥 밀려드는 걱정에

내려온 원정학동무는 이렇게 말

했다.

『네 이 손으로 기어이 당앞에

결의한 활공날자를 두조진 지켜내셨소.』

18명 기능공집단은 바로 이

만 예술총장의 한마음은 무궁무

진한 힘의 원천으로 알고 있었다.

하기에 하루에 열수백대의

용접봉을 걸어기우며 혁신의 불

꽃을 피웠던 날짜온 고용진.

『제18기 조립공은 민족의

죽을 품고 청천정화장관리소

에서 청천정화장관리소

